

안두진

‘A Stone’ — 어떤 돌

* 관람안내 / 조현화랑_부산

전 시 명 : 안두진 개인전 ‘어떤 돌’

전시기간 : 2014년 11월 14일(금) ~ 2014년 12월 14일 (일)

전시장소 : [조현화랑_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71

개관시간 : 화~일요일 11:00~19:00 (매주 월요일 휴관)

전시담당 : 신미나(010-2557-9770) / 윤보람(010-2025-4737)

전시문의 : [조현화랑-부산] T.051 747 8853 F. 051 742 8852 E.info@johyungallery.com

웹하드정보: ID - johyun1990 / PW - 6364 (게스트 전용폴더)

Johyun Gallery

* 전시 내용

조현화랑 부산 본관에서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자신만의 미술이론을 정립하고 설치 및 회화에 적용시킴으로써 한국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안두진의 작품 27여 점이 소개된다.

안두진은 대학시절부터 이미지의 최소단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물질에 최소한의 단위가 있듯이 이미지에도 최소단위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마쿼크' 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스스로 정립한 '이마쿼크' 라는 이미지의 최소단위는, Image의 Ima-와 물질을 쪼개었을 때 이르는 최소단위인 Quark의 합성어이다. 그의 작업은 이미지의 최소단위들이 모여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는 유기적인 과정에 주목하여 이에 따른 조형세계를 창조한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이마쿼크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작가는 회화적 실험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작업이 이마쿼크로 만들어진 원형의 단계에서 회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원형의 개념 -> 원형이 가지는 대립과 충돌의 언어적 속성 -> 회화적 요소와 패턴의 긴장관계를 통한 회화의 비선형적 서술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조건에서 회화가 발생하는 연구)을 보여줬다면, 이번 '어떤 돌' 전에서는 회화의 발생과정에 대한 실험을 통해 회화 그 자체를 만들고자 한다. 발생적 측면에서의 '회화' 는 요소, 패턴, 구조, 모호성 이라는 층위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요소들은 쌓기, 나누기, 뒤섞기와 묘사, 에너지, 평면성과 관계를 형성하여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패턴들의 조합으로 추상성은 형상을 연상시키고 풍경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된다. 회화는 풍경을 연상시키나 풍경이 아닌 회화 발생의 시작으로 회화 그 자체로의 탄생이다.

회화가 관계와 패턴의 복잡성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연물이 가지는 내적 구조와 유사하다. 자연물에 근접한 회화를 발생적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회화의 내적 구조가 자연법칙을 따라간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번 작업에서는 3개의 돌이 등장한다. <움직이는 돌>, <자라나는 돌>, <분리되는 돌> 크게 분류하면 이 세 가지인데 전작에서의 장식성과 내러티브를 제거하고 패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나타나는 돌들이다. 이 돌들은 첫째로 크기를 무시한다. 마치 바위처럼 거대하고 작은 돌처럼 동그랗다. 크기와 무관한 돌의 모습은 돌과 바위의 메시지를 제거한 채 오직 무게의 존재만으로 상정한다. 두 번째로 움직임이다. 바위가 가지는 뿌리내린 무거움은 절대적으로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함으로 '무거움- 허락되지 않는 움직임' 이 만들어내는 균열의 파열음이 의미를 만들어낸다. 세 번째로 이 돌은 자라나고 있다. 이 돌들은 더 이상 오브제가 아니며 물질로서 환경에 의한 변화- 풍화 작용에 의한 깎임 말고 외형의 변화가 없다-만 있는 돌들이 아니다. 마치 식물처럼 자라나고 무성 생식처럼 분리되는 돌들이다. 이 3가지 돌들은 회화 안에서 다음의 3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1)패턴과 충돌의 긴장관계 움직이는 돌 2)풍경의 시작- 추상성의 대립을 통해 발생된 연상 3)돌로써 스스로를 은유 하는 회화- 순환하는 메타포 이 세가지를 통해 돌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들어낸 패턴의 관계망을 관통하여 그 자체로 발생하는 회화의 진화적 형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안두진의 작품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본성과 시각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예술가의 의무 사이에서 탐구하고 고민한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신하고 도발적인 시선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안두진의 작품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현주소와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작가 소개

1975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안두진은 2005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신진작가로 선정되었다. 이후 경기문화재단, 브레인팩토리, 사루비아 다방의 개인전등 주로 비영리 공간과 미술관의 전시를 선보이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송은 아트 스페이스, 스페이스 캔(북경)의 개인전과 국립현대 미술관, 대구 시립미술관, 영국의 싸치 갤러리에서 열린 그룹전등에 참여하여 총 7회의 개인전과 60여회가 넘는 단체전을 통해 소개되었다. 현재 경기도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송은문화재단, 올리버 스톤 컬렉션에서 안두진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혜성의 고향, 오르트 구름 안두진

-이마쿼크와 원형

이마쿼크(Imaquark)¹⁾의 요소로부터 시작된 원형의 관계는 송고함의 그림자를 덧입힘으로 유기적 환원을 통해 구조화를 이룬다. 유기적 구조화의 의미를 '송고'란 개념에 은유한 것은 이마쿼크의 유기적 구조화가 가능할 수 없는 가능성과 의미를 배태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내포하기 위함이다. 이런 i-원형²⁾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하였다. 첫 번째는 i-원형을 통해 송고한 장소를 만들므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Saint Brain Temple, 브레인 팩토리 2006) 두 번째는 장소적 체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낯선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기대와 두려움의 상반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마콤에서 벌어진 은밀한 파티,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2008) 장소와 체험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원형이 가지는 구조가 순환적 방향성과 열린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가능성과 의미는 범주와 영역이 없음에 결정 불가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이면서 전체이고 전설과 신화를 낳는 사건이며 언어로서의 단어인 것이다. 즉 요소와 구조의 개념이 상하위 개념이거나 수평적 개념이 아닌 유기적 환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이마쿼크의 요소들의 집합적 배열인 원형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기계적인 배열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행동과 사건인 것이다.

-결정 불가능적 구조 (불편, 불안의 정서)

이러한 가능성에 관한 세 번째 실험은 i-원형이 지니는 창조적 구조인 유기적 관계망을 미술적 언어로 환원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송고함을 모방할 수 있고 그 그림자를 덧입은 i-원형이 서사를 낳는 파괴적 구조를 보여줌으로 결정 불가능적 성격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사건, 먹구름이 밀려가는 불안한 날씨, 그림의 정서와 그리기 방식의 대립 등 불안과 불편의 정서들은 요소와 내용으로 연결되어 특이점³⁾ 상태가 된다. 이는 하나의 지점이며 가능성이요 파생될 의미를 은유한다. 신화와 전설, 이야기가 되고 이미지와 개념의 비선형적인 압축으로 혼돈된 양상이 낳는 특이점이 원형인 것이다. 이것을 미술적 언어로 환원시키기 위해 각 요소들-내용, 화면, 표현방식-을 대립, 충돌시킨다.

-대립과 나선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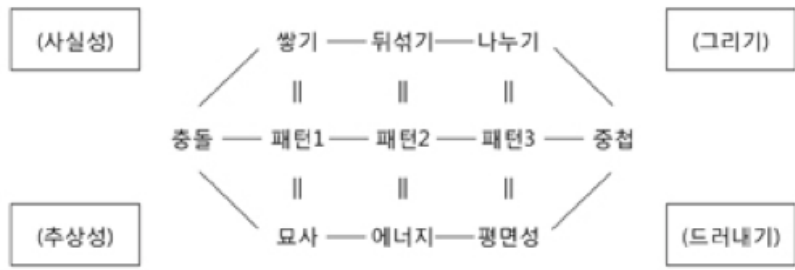
작업 전반에 나타나는 '낭만적 정서'와 작업의 세부적 단계가 패턴을 형성하여 대립시킴으로 긴장관계를 연출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검은 구름은 화산재를 연상 시킬 정도의 무거운 구름이다. 이러한 무거운 구름이 열대의 구름처럼 활동적으로 움직이므로 보여지는 상태와 성질의 대립이 이뤄진다. 또한 풍경은 실경처럼 보이나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패턴으로 이뤄져 있다. 패턴(그려지는 방식)과 실경(보여지는 양상)의 대립을 통해 각 요소들간의 대립적 사건들이 나열된다. 회화 전체적으로 구름과 실경이 화면에 대립되고 회화적 그리기와 패턴적 그리기가 대립되며 내용적으로 거대한 해일과 인간의 전쟁이 가지는 상징성의 충돌로 각 요소의 연속된 대립의 충돌을 연출하고 있다. 즉 내용(삶과 죽음의 허무), 정서와 그리기 방식, 화면의 분할 등 각 요소의 내적, 외적으로 대립시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대립적 관계망은 불안과 불편의 정서들을 연출하여 미술적 언어로서 사건을 이야기한다.

요소 내적인 대립) → <요소들간의 대립> → <충돌의 관계망 형성> → <이미지로의 전환> →
<불안의 정서를 형성> → <미술언어의 발생>

화면 위에서 각 요소들은 '대립과 충돌'이라는 방식으로 대립의 띠(line)를 형성하고 '관계와 차이'로 구조화되어 각 단계의 대립적 상황들은 상위의 사건들로 전환되어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의 방식은 나선적 구조와 방향성을 지닌다. 나선적 구조화로 순환과 방향성은 열린 구조의 성격을 지님으로 요소적 단위와 개념적 구조화의 일치를 이루어 결정 불가능적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즉 가능성의 집합과 은유의 나열이 의지적 진화와 창조적 관계를 통해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의 상호작용은 유기적 관계망을 통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진 유기체로서 발전한다.

-긴장 관계와 비선형적 서술

원형의 유기적 구조가 대립의 띠와 나선적 구조에 있으므로 원형내의 세부적 작용의 원리는 각 요소들의 긴장을 통한 대응관계에 있다. 이마퀼크의 집합들을 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수히 많은 집합들은 어떤 특질과 성격에 의해 조합되기 마련이다. DNA의 염기 서열이나 원자들의 조합의 방식처럼 원자 하나하나보다는 그것들의 순서와 상태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마퀼크의 집합들 역시 이마퀼크 내의 함수공간으로 인해 집합의 방식에 다양한 변형이 생기고 여기서 집합들 사이의 '꼬임' 이 발생한다. 이 꼬임을 패턴의 발생단계라고 한다. 이 꼬임의 단계는 패턴의 특징을 좌우하는 시작 단계로 질료와 관계적 대응에서 일어난다. 다음은 각 요소들 내의 대응관계(세로축)와 패턴과 패턴의 충돌과 중첩의 과정(가로축)의 꼬임 현상을 관계도로 정리한 것이다.



점과 같은 터치, 선을 긋는 터치, 면을 만드는 터치, 이 세 가지의 터치들이 각자 쌓기를 통해 패턴을 구성하고 레이어(층)을 만든다. 상이한 붓질들은 땅과 돌, 나무, 숲 등이 되는데 각 요소마다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고 이들의 긴장 관계에서 풍경이 시작되며 레이어와 레이어들의 간극에서 비선형적 서술이 발생한다. 이것은 풍경으로 은유 되어 상상의 틈과 공간을 만든다. 은유를 발생시키는 꼬임들은 체계로서의 기능과 자기조직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언어적 체계로 또 다른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왜냐하면 최초의 풍경은

건조하게 시작됨으로 풍경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성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의미를 한정 짓는 주제나 이론이 아닌 나열된 상태를 묶는 범주화의 단계이다. 따라서 이 곳은 합리적이면서 비논리적이며 랜덤이면서 체계를 따르는 상태이다. 이런 충돌과 대립의 체계가 만들어내는 균열은 가설과 상상을 만들어 내어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각주
 1) image의 'ima-' 와 소립자의 복합모델에서의 기본 구성자 'quark' 의 합성어이다. 쿼크가 물질적이면서도 비물질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 직관적인 태도를 가진 이미지의 속성을 은유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미지의 최소단위를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직접 만들었다.
 2) 이마퀼크의 원형의 단계를 i-원형이라 부른다.
 3) 특이점은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물질도 공간도 시간도 응축된-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라볼 공간조차 없는- 상태이며 질서를 만들고자 준비된 혼돈이다. 빅뱅이란 파괴적 폭발은 아이러니하게 공간과 질서와 그에 걸맞은 형태를 이루며 폭발적인 생산을 이뤄낸다. 이러한 시작의 직전 단계가 특이점이다.

- 1975 경기도 수원 출생
- 2002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
- 2006 홍익대학교 동대학원 회화과 졸

개인전

- 2014 어떤 돌 (조현화랑, 부산)
- 2013 오르트 구름 (이화익 갤러리, 서울)
- 2012 림보에서의 아침 (스페이스 캔, 베이징 중국)
- 2011 충돌의 언어: The Fault Lines (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9 Z이야기-History of Izzard (카이스 갤러리, 홍콩)
- 2008 마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파티 (사루비아 다방, 서울)
- 2006 Saint brain temple(브레인 팩토리)
- 2005 Fantastic hot story (경기문화 재단, 수원)

단체전

- 2014 네오 산수 (대구미술관, 대구)
- 2013 7인의 사이길 (아트컴퍼니 각, 서울)
- 아부다비 아트페어 (이화익갤러리, 아부다비)
- 슈퍼 내츄럴 (크리스티, 뉴욕)
- La Convivencia (갤러리 조선, 서울)
- 2012 갈라파고스 (일민미술관)
- THIKING OF SARUBIA (이화익갤러리)
- 2012 청년미술프로젝트: 메타제국 (대구 EXCO)
- 송은문화재단 소장품전 (송은 아트센터, 서울)
- 코리안 아이 (사치 갤러리, 런던 영국)
- 한옥 프로젝트-오픈 스튜디오 (성북동 한옥, 성북동)
- 감성의 기록 (롯데 갤러리, 일산)
- 시프트 (조현화랑, 부산)
- 2011 해인아트 프로젝트 (해인사, 합천 경남)
- 빛의 신세계 (모란미술관, 남양주 경기도)
- 데카메론 (스페이스 캔, 베이징 중국)
- Thinking of SARUBIA (가나컨템퍼러리, 서울)
- 백년 몽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서울)
- 시프트 (조현 화랑, 서울)
- 2010 플라주 오브 메모리 (소카 아트센터, 베이징 중국)
- 색 S.A.I.C: 욕망에서 송고까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HOMA, 서울)
- Korea Tomorrow (SETEC 3관, 서울)
- 공간- Transformation (어울림누리 미술관, 경기도 고양시)
- Real Antenna (스페이스 함, 서울)
- Healing-성북예술창작센터 개관전, (성북 예술창작센터, 서울)
- 사이에서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 주체의 결핍 (인터알리아 갤러리, 서울)
 AZING BEYOND (갤러리 비원, 서울)
 몽인 아트 스페이스 오픈 스튜디오 (몽인 아트 스페이스, 서울)
 포인트-한국, 일본 젊은 아티스트 비평가 교류전, 교토 아트 센터, 교토 일본)
- 2009 One day -토탈미술관 기획 프로젝트 the room (토탈미술관, 서울)
 A new common sense of space (레오나르도다빈치 과학기술박물관, 밀라노이태리)
 io (할렘스튜디오 펠로우쉽, 뉴욕)
 Doors (실비아 월드 앤 포킴 갤러리, 뉴욕)
 제 31회 중앙미술대전 (한가람미술관)
 UP AND COMERS신진기예전(토탈미술관,서울)
 Do Window (갤러리 현대, 서울)
- 2008 I am an artist-젊은 모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부산 비엔날레- 바다미술제 (광안리 미월드, 부산)
 포인트-한국, (일본 아티스트 교류전, 대안 공간 루프, 서울)
 프라이버시 (캔버스 인터내셔널 아트, 암스테르담, 네델란드)
 더 브릿지 (인사아트센터, 서울)
 프라이버시-3회 회화 모음전 (대안공간 루프, 서울)
 창동 국립현대미술창작스튜디오<오픈 스튜디오>
 브레인 팩토리 5주년 베네핏 행사 (토탈미술관, 서울)
- 2007 Stress Fighter (대안공간 풀, 서울)
 반갑습니다.” -런던 옥류관 (아트하우스, 런던)
 일기예보전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 2006 잘긋기(소마미술관,서울)
 예술의 밝은 미래 (달링 스페이스, 서울)
 Door to door 4 (대안 공간 풀,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11 한옥 프로젝트- 캔 파운데이션 레지던시입주 작가 (서울)
 2008-2010 몽인아트스페이스 입주 작가 (서울)
 2009 할렘 스튜디오 펠로우쉽 (뉴욕, 미국)
 2007-2008 국립 창동스튜디오 입주 작가(서울)

기금 선정

- 2009 해외교류지원, 문예진흥기금잉
 2006 경기문화재단 지원기금
 2005 경기문화재단 지원기금

소장처

- 올리버 스톤 컬렉션
 송은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Space CAN_ Beijing, China 'A Morning in the Limbo' Installation view
/ 2012.6.2-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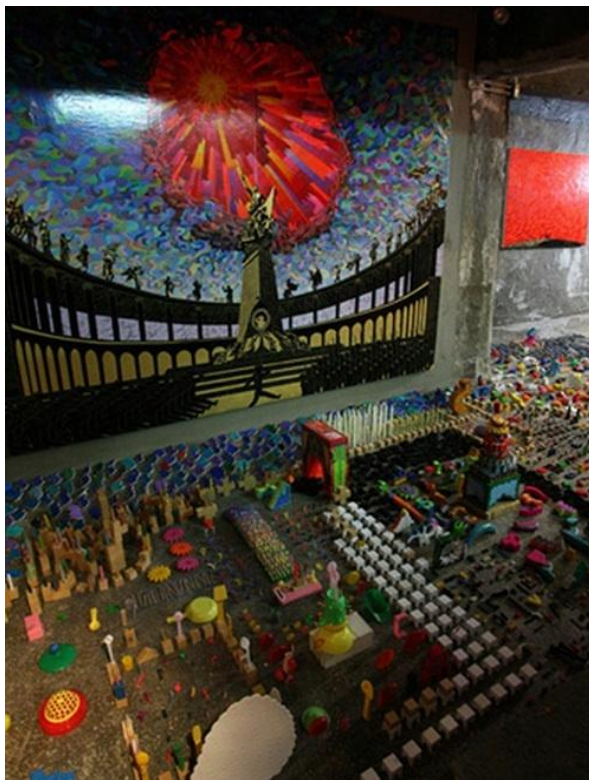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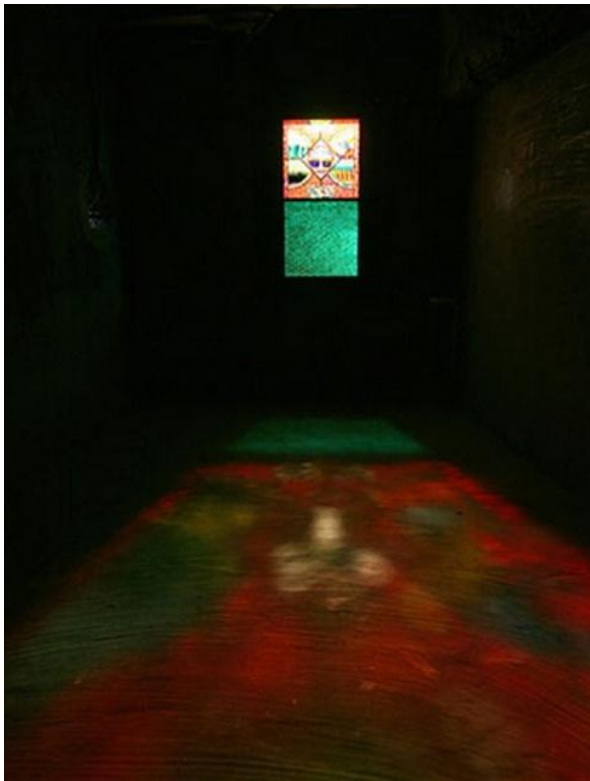
SongEun Art Space_ Seoul, Korea 'The Fault Lines' Installation view
/ 2011.6.17-7.30





Project space Sarubia _ Seoul, Korea 'Covert party at makcom' Installation view
/ 2008. 2.13-3.14





Brain factory _ Seoul, Korea 'Saint Brain Temple' Installation view



* 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진제공: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장의 방식

2014

Oil on canvas

80.3x116.8cm

(사진제공:조현화랑)

* 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진제공: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Wave

2014

Oil on Canvas

91x116.8cm

(사진제공:조현화랑)

* 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진제공: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경 위에 풍경
2013

Oil on Canvas
162.1x227.3cm

(사진제공:조현화랑)

* 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사진제공:조현화랑\)](#)을 함께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은 구름과 노란색 방

2014

Oil on Canvas

80.3x116.8cm

(사진제공:조현화랑)